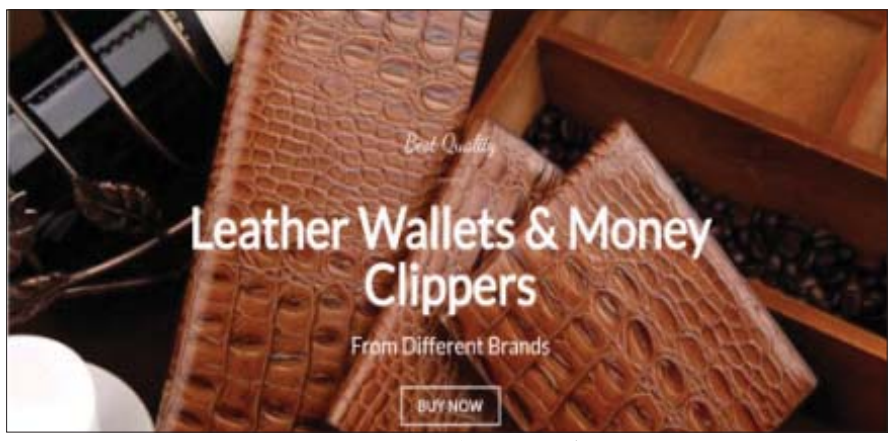
도시문제, 사업아이템 탈바꿈… 인도 공공쇼핑몰 중국 목욕도우미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해결대상에서 새로운 가능성 전환
델리, 쇼핑몰 '딜리 바자르' 오픈
쿠알라룸푸르시, 도로 연결망 개선



델리 NCT 정부는 공공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딜리 바자르'를 오픈해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딜리 바자르 홈페이지 캡처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노인 인구 폭증와 맞물린 돌봄 공백,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 같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공공 온라인 쇼핑몰 개설, 목욕 도우미 사업 운영, 교통 인프라 개선 등에 나서고 있다.

13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공공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아마존, 플립카트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같은 소규모 사업자가 온라인 시장에 개별적으로 진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델리 NCT 정부는 공공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딜리 바자르'를 오픈해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상인협회, 물류업체와 협의를 토대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프로젝트 첫 단계로 연내 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1만명 이상의 사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델리 NCT 정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같은 상품이 다른 웹사이트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격 비교 서비스와 가상공간 기반 시장 투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창구를 확보, 상품 홍보망을 구축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력이 없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사업가들이 목욕 서비스 회사를 차린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시 봉쇄가 자주 이뤄짐에 따라 외부 시설에서 목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목욕을 도와주는 기사'(助浴師, 중국명 '쭈위스') 사업을 호황으로 이끌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목욕을 시켜주는 일이 기력을 잃어버린 노인에게는 좋은 일이나 1회당 서비스 가격이 중국 노인의 평균적인 경제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 1~2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는 인구의 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확대, 혼잡 통행료 부과, 도로 연결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통계획 2040'을 마련해 내놨다.

쿠알라룸푸르시의 인구는 현재 190만명에서 오는 2040년 260만명으로, 약 3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근무자들이 교통 체증으로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월평균 44시간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308링깃(한화 약 8만8000원)으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시는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개인용 이동수단 운영 지구를 지정해 대중교통과 개인용 이동수단 간의 환승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교통 혼잡과 승용차 이용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내일부터 '겨울철 종합대책' 시행

다중이용시설 600개소 안전검점
난방비 등 한파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2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연말연시 대규모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행사에 대비해 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대나 강남역처럼 혼잡도가 높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5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연장(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경기장(잠실주경기장), 전통시장(광장시장·남대문시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600여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

한파 취약계층도 두텁게 지원한다. 노숙인 방한용품 8만600점, 쪽방주민 생필품 4만1185점을 지원하고, 26만 저소득가구에는 가구당 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민간기업과 협력해 아동보호시설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에 10억원 규모로 난방비를 보조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3만6145명을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실시, 안전을 확인한다. 전기·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수혜 범위에 포함시켜 전년보다 35% 증가한 20만1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강설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경사·제설 취약·폭설피해 구간 같은 중점관리 대상 54개소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전담장비·인력을 배치해 관리하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지하철 역사 340개 등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강설 시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 지하철·버스 출퇴근 시간 운행을 30~60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는 백신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3397개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겨울철 에너지 안정 공급 방안을 준비해 시행키로 했다. 에너지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내부온도를 17도로 제한해 에너지 절약에 힘쓸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한파와 재난 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메타버스 서울, 타임지 '최고의 발명' 선정

서울시 메타버스 공공발명 유일 사례

메타버스 서울 이미지. /서울시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2 최고의 발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타임지는 매년 전 세계 획기적인 발명을 선정해 소개해왔다. 올해에는 '메타버스 서울'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공공 발명으로는 유일하게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선정작은 ▲개인 아바타를 통해 가상환경에서 현실감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즈용 메시' ▲혁신적인 진동 촉각을 경험할 수 있는 액트로니카사의 '스키네틱 햅틱 조끼'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통합하는 몰입형 교차 장치 플랫폼인 매그노푸스사의 '연결된 공간'으로 모두 기업 발명에 해당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 정부 최초로 구축되고 있는 서울시의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시는 올 상반기 '메타버스 서울시청'이라는 시험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어 비공개 시범 운영했고, 이달 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경기똑D'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경기도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동인증서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27일 정식 개시한 경기똑D는 ▲복지정보와 공개채용정보 등 '맞춤수혜정보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본인 확인서비스 '도민카드 서비스'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휴대폰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도민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리포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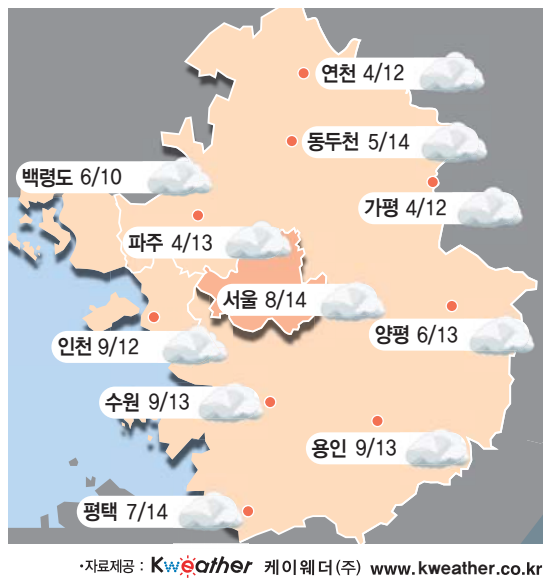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10 | 해짐 / 17:22

11월 14일 (月)
음력 : 10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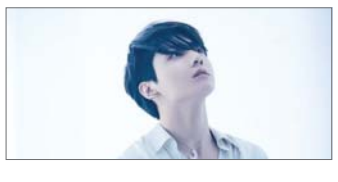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8 ~ 14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BTS 정국, K팝 가수 최초 월드컵 개막식 공연 /사진 뉴시스
▲'블랙 팬서:와칸다 포에버' 100만 돌파 목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
▲이강인, 월드컵 '주목할 아시아 영건 5인' 포함

▲'대세' 박민지, KLPGA 시즌 최종전 우승 /사진 뉴시스
▲4년 만에 서울 개최 '서머너즈 워' 월드 챔피언십, 中 '타스' 우승